전남광주서 짓다 만 건물 17곳…“장기 방치 심각”

7곳은 공사 중단 20년 초과…전체 41.2%
정비 선도사업 4곳 중 3곳 아직 검토 단계

전남광주지역에서 공사가 중단된 채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이 17곳에 달하고 이 가운데 7곳은 공사가 멈춘 지 20년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선정한 지역 선도사업도 4곳 중 3곳이 검토 단계에 머무르면서 사업 지연 원인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제4차 실태조사 기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은 광주 3곳, 전남 14곳 등 총 17곳으로 집계됐다.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은 착공 이후 공사가 중단된 기간이 2년 이상인 건축물이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법에 따라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역 내 공사 중단 기간을 합산하면 5년 이하는 1곳, 5년 초과~10년 이하는 6곳, 15년 초과~20년 이하는 3곳, 20년 초과는 7곳이었다. 10년 초과~15년 이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없었다.

공사가 멈춘 지 10년을 초과한 건축물은 10년 초과~15년 이하, 15년 초과~20년 이하, 20년 초과 구간을 합쳐 총 9곳으로, 지역 전체의 52.9%를 차지했다.

특히 20년 초과 건축물 비중은 41.2%로 전국 평균인 33.2%보다 8.0%p 높았다.

세부적으로 전남은 20년 초과가 6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년 초과~10년 이하 5곳, 15년 초과~20년 이하 2곳, 5년 이하 1곳 순이었다. 광주는 5년 초과~10년 이하, 15년 초과~20년 이하, 20년 초과가 각각 1곳이었다.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를 위한 선도사업도 완료 실적이 제한적이었다.

정부는 정비가 시급하거나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을 정비 선도사업으로 지정해 지원하고 있다. 2015년부터 지정된 선도사업 가운데 광주는 1곳, 전남은 3곳으로 총 4곳이다.

전남은 1곳이 사업을 완료했고 나머지 2곳은 검토 중이었다.

광주 1곳도 검토 단계로, 지역 선도사업 4곳 중 3곳은 정비 방안을 검토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전국적으로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이 늘었다.

지난해 제4차 실태조사에서는 총 361곳으로, 2022년 제3차 조사 당시 286곳보다 75곳(26.2%) 증가했다.

전국의 공사 중단 기간은 5년 이하 66곳, 5년 초과~10년 이하 78곳, 10년 초과~15년 이하 48곳, 15년 초과~20년 이하 49곳, 20년 초과 120곳이었다.

10년을 초과한 건축물은 217곳으로 전체의 60.1%를 차지했다.

용도별로는 공동주택이 112곳으로 가장 많았고 숙박시설 65곳, 단독주택과 업무시설 각각 41곳 등이 뒤를 이었다. 전국 정비 선도사업은 41곳이지만 사업이 완료된 곳은 14곳에 그쳤다.

문정복 의원은 “20년 넘게 공사가 멈춘 건축물이 120곳에 달하는 만큼 장기방치를 더 이상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선도사업이 실제 정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연 원인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소상공인연합회-소상공인정책학회 ‘소상공인 성장 발전’ 업무협약 소상공인연합회와 소상공인정책학회가 최근 ‘소상공인 성장 발전을 위한 상호 교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수립하는 데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호남 기술창업, 투자사 만날 기회 넓어진다

중기부 ‘도전의 IR 프로젝트’ 본격화…생애 첫 투자유치 지원
순천 ‘웰컴투팁스’·광주 ‘창업도시 IR’ 등 지역 네트워크 강화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갖춘 초기 창업기업의 생애 첫 투자유치를 지원하는 ‘도전의 IR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하면서 호남권 창업기업과 투자사 간 접점이 확대된다.

특히 호남권에서는 오는 11월 5일 순천대학교에서 ‘웰컴투팁스’가 열려 지역 초기 기술창업기업과 팁스(TIPS) 운영사 간 투자 네트워크 구축이 추진된다.

중기부는 1일 서울 강남 팁스타운 S1에서 ‘도전의 IR 퍼스트 밋업’을 개최하고 혁신 창업가와 투자사를 연결하는 ‘도전의 IR 프로젝트’를 본격 시작했다고 밝혔다. ‘도전의 IR 프로젝트’는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갖추고도 투자 네트워크와 정보 부족으로 투자유치 기회가 부족했던 창업자와 역량 있는 투자사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참여 대상은 생애 첫 투자유치를 목표로 하는 기술창업자와 예비창업자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보유한 창업자를 대상으로 투자 설명회와 네트워킹 등을 진행해 실제 투자 논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기부와 142개 팁스 운영사는 올해 안에 300회 이상의 대면 투자설명회(IR)를 개최할 계획이다. 운영사별 IR을 비롯해 ‘모두의 창업’ 연계 IR, 지역별·분야별 IR 등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기업과 투자사의 만남을 확대한다.

호남권 창업기업이 주목할 프로그램은 ‘웰컴투팁스’다.

‘웰컴투팁스’는 팁스 참여를 희망하는 비수도권 소재 초기 기술창업기업과 팁스 운영사 간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행사다.

올해부터는 기존 수도권·동남권·충청권·호남권·대경권 등 5대 권역에서 전북·강원·제주까지 개최 지역을 확대했다. 권역별 우수기업에는 예비 팁스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프리팁스’ 지원사업 우선선정 기회도 부여한다.

호남권 행사는 오는 11월 5일 순천대학교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를 통해 호남권 초기 기술창업기업들은 지역에서 팁스 운영사를 직접 만나 사업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설명하고 투자유치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게 된다.

팁스는 민간 운영사가 유망 기술창업기업을 선별해 투자하면 연구개발(R&D)과 창업사업화 자금을 연계 지원하는 민관협력형 창업지원 체계다.

‘도전의 IR 프로젝트’를 통해 초기 창업기업의 투자사 접촉 기회를 넓히고, 실제 투자유치 이후 팁스 참여 등 후속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한다는 게 중기부의 구상이다.

광주에서도 창업기업의 투자 네트워크 확대가 추진된다.

중기부는 광주·대구·대전·울산 등 4개 창업도시에서 4대 과학기술원과 협업해 ‘창업도시 IR’을 개최할 예정이다. 지역별·분야별 IR 데모데이에는 창업기업과 팁스 운영사, 선배기업 등이 참여해 투자유치와 네트워킹을 진행한다.

호남권에서는 순천의 웰컴투팁스와 광주의 창업도시 IR 등을 통해 지역 창업기업이 투자사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잇따라 마련되는 셈이다.

또 ‘도전의 IR 프로젝트’를 통해 실제 투자유치까지 이어진 경우에는 팁스 사업 선정평가에서 가점 등 우대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초기 투자유치가 연구개발과 사업화 등 후속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연계한다는 취지다.

앞서 지난 9월 15일부터 진행된 1차 운영사별 IR 투자 제안에는 현재 500명 이상의 창업자가 참여했다. 운영사는 투자 제안을 한 창업자 가운데 대면 IR에 참여할 창업자를 선정해 IR 개최 7일 전까지 결과를 안내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창업에 도전한 인재들이 투자유치와 성장이라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해양에너지, 고객 서비스 혁신·사업 다각화

ESG위원회…AI 상담 활용방안 공유

㈜해양에너지가 인공지능 기반 고객 상담 서비스와 신규 에너지사업, 안전관리 활동을 점검하며 지속가능한 경영 기반 강화에 나섰다.

1일 ㈜해양에너지에 따르면 최근 글로벌마루정원에서 제21차 ESG위원회를 개최하고 고객 서비스 혁신과 사업 다각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상담센터 인공지능 기반 상담 시스템(AICC) 도입 시연과 신규사업 추진 현황, 안전관리 주요 활동, 회사 발전방향 제안 및 자유토론 등의 안건이 다뤄졌다.

상담센터 AICC 도입 시연에서는 인공지능 기반 상담 시스템의 주요 기능과 실제 상담 과정을 확인했다.

참석자들은 상담업무를 효율화하고 고객 응대 품질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 활용 방안을 공유했다.

신규사업 추진 현황과 관련해서는 에너지저장장치(ESS) 중앙계약시장 참여 검토 결과와 태양광 발전사업의 추진 현황 및 계획을 살폈다. 이를 바탕으로 에너지사업을 다각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신규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안전관리 주요 활동 안건에서는 작업중지권 행사 사례와 안전관리규정 우수 사례를 공유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통·사회안전대축전 종합대상 수상 성과도 소개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